한국심리학회지: 임 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4. Vol. 23, No. 2, 521-540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서 수 균† 이 훈 진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분노표출/분노억제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을 표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대학생 316명에게 예비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생 134명에게 분노표현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들을 분노표출/ 분노억제 태도 척도와 함께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분노표출 태도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4개 요인(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10문항), 적극적인 분노표출 지지(10문항),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9문항), 소극적인 분노표출 지지(7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2) 분노억제 태도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2개 요인(분노억제-반대(17문항), 분노억제-지지(6문항))을 포함하였다. 3)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76~.89로 적절하였다. 4) 분노표현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와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타당성을 일관되게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가 분노표현 행동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주요어 : 분노표현, 분노표출 태도, 분노억제 태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 수 균 / 서울디지털대 상담심리학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4-10 윤당빌딩 3층
TEL : 02-2128-3063 / FAX : 02-2123-3111 / E-mail : sgseo@sdu.ac.kr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 경험중의 하나가 바로 분노다. 전겸구(1999)에 따르면 분노를 한 주에 한번 이상 경험하는 사람이 91.8%였으며, 절반의 사람이 한 주에 3~5번의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분노 경험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주장적인 의사소통이나 적극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격려하지만, 분노가 과도할 경우에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표현되기 쉽고 이로 인해 타인과 지속적인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DiGiuseppe, 1999).

분노의 부적절한 표현 양상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Biodeau, 1992; Gottlieb, 1999; Thich Nhat Hanh, 2001). 분노표출은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인다거나 욕하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 등이 그 예다. 분노억제는 화가 나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화가 나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거나 사람을 피하고 속으로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적응적인 분노 표현 양상인 분노통제는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것으로, 냉정을 유지하고 화를 돋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심리장애들이 진단 기준으로 과도한 분노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반사회적/경계선적/자기애적 성격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 장애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과도한 분노표출은 알콜 관련 문제와 심장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김교헌, 전겸구, 1997; 전겸구, 1991;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분노억제가 강한 사람들은 주로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많이 보였으며, 섭식장애자들도 분노억제가 높았다(Bridewell & Chang, 1996; Moore & Paolillo, 1984; Zaitsoff, Geller, & Srikameswaran, 2002). 분노표출과 마찬가지로 분노억제 역시 심장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분노억제가 심한 사람들이 자살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교헌, 2000; 김교헌, 전겸구, 1997; 전겸구, 1991; Cautin et al, 2001; Martin, Wan, David, Wegner, & Watson,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심리적, 신체적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임상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노표출과 억제를 일으키는 인지적 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Ellis & Tafrate, 1997; Kassinove & Sukhodolsky, 1995; Lazarus, 1991). 그 대부분은 분노와 관련된 다양한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평가, 자동적 사고, 귀인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이훈진, 2001; Averill, 1983; Beck, 2000; Deffenbacher & McKay, 2000; Snyder, Crowson, Houston, Kurylo, & Poirier, 1997). 이러한 연구들은 분노경험을 촉발시키거나 증폭시키는 다양한 인지적인 요인들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분노표현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나 신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분노경험이 흔히 타인과의 관계 상황에서 일어나며, 분노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소하느냐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신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분노표현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나 신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의외의 일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태도라고 한다(차재

호, 1996). 태도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따르면 분노표현 태도는 분노 표현과 관련된 개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서 모두 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태도는 두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의 내용이 되는 지식이나 신념(belief)을 일컫는 인지적 요인과 대상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감정적 평가 요인이 그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평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성을 포함시켜 태도의 3요인설을 주장하기도 한다(나은영, 2000; 차재호, 1996). 태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따라, 본 연구자는 분노표현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다. 분노표현 태도는 특정 분노표현 양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분노표현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이나 지식을 말하며, 잠재적으로는 개인의 분노표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잠재적이라고 한 이유는 분노표현 태도가 그것과 일관된 행동경향성을 갖게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내적 혹은 외적 요인들로 인해서 태도와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서 경험과 표현에 관한 사회적으로 적절한 규칙을 학습해 가는 과정을 정서적 사회화(emotional socialization)라고 한다(Mancuso, 1999). 분노표현에 대한 태도도 이러한 정서적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것으로 비교적 안정된 인지적 특질로 볼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정서 경험에 대한 개인의 규범을 정서 이상(emotion ideals)이라 하였으며, 분노 경험에 대한 개인의 규범을 측정하는 척도로 분노이상 척도(Anger Ideal Scale)를 개발하기도 하였다(Mancuso, 1999; Mancuso & Fredrickson, 1995). 그렇지만 화를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과 같은 분노표현 양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도구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분노표현 양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양상이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분노표현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의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양상, 즉 화를 과격하게 표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는 양상은 분노표현에 대한 경직되고 편향된 개인의 태도에 상당부분 기인할 것이다.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제와 같은 분노표현 양상은 개인의 특질적인 반응경향성이다(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8; Spielberger et al, 1995). 개인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범상황적으로 일관된 분노표현 행동을 보인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분노표현 양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 요인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만약 분노표현 양상에 대한 태도가 실제 분노표현 행동을 예언해 준다면 이는 치료적인 함의가 크다.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태도를 적응적으로 수정시켜주는 것이 치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태도의 이러한 임상적인 함의를 염두에 두고 분노표현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분노표현 양상에 대한 Spielberger 등(1995)의 제안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동일한 차원이 아닌 독립된 차원의 분노표현 양상임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따라 분노표현 태도를 분노표출 태도와 분노억제 태도로 구분하였다.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는 관련된 분노표현 양상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태도는 분노표출 행동과, 분노억제를 지지하는 태도는 분노억제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태도와 분노유발 상황에서 보이는 이차적 분노사고와의 상관을 분석해 보았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분노 유발 상황에서 개인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사고

로 주로 분노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보복 요인은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태도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며, 무력감 요인과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요인은 분노억제를 지지하는 태도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분노표현 양상의 기저에 있는 인지적 요인으로 분노표현 태도를 가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분노표현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분노표현 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분노표현 행동을 초래하는 분노표현 태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분노를 억제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기저에 이들 분노표현 양상을 선호하는 경직된 태도가 내재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태도를 적응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치료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연구 1.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 제작

방 법

예비문항 수집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의 예비문항을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대학의 학부에 재학중인 대학생 82명에게 세 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답하게 했다; 1) 화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 화를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대체로 생각하십니까? 3) 화를 지나치게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질문에 대해서 최소 두 개 이상씩 대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참여자의 성비는 남자가 49명으로 60%를, 여자가 33명으로 40%를 차지하였다. 질문1과 2는 분노표출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으로 124개의 문항이 수집되었다. 질문 3은 분노억제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으로 매우 유사한 문항을 제외하고 56개의 문항이 수집되었다. 이 문항들을 본 연구자를 포함한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 5명이 유사성, 적절성, 특이성 등을 고려해서 독립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55 문항의 예비 분노표출 태도 척도와 28 문항의 예비 분노억제 태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참여자 및 절차

참여자는 모두 서울 시내 학부 대학생들로 심리학이나 교육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의 참여자는 모두 316명으로 남자가 173명(5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3세였고 여자는 143명(45%)으로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이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최종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 묶음을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 묶음에는 개발된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 공격성 질문지,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 등이 포함되었다. 이 집단의 참여자는 모두 134명으로 남자가 64명(4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4세였고 여자는 70명으로 평균 연령은 22세였다.

도구

공격성 질문지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신체적 공격행동(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행동이 .74, 언어적 공격행동이 .73, 분노감이 .67, 적대감이, .76이었다(서수균, 권석만, 2002). 동일한 연구에서 5주 간격으로 얻어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신체적 공격행동이 .71, 언어적 공격행동이 .83, 분노감이 .60, 적대감이 .75였다.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에서 상태분노를 제외하고 특질분노(10문항)와 세가지 분노 표현 양식인 분노-억제(Anger-In)(8문항), 분노-표출(Anger-Out)(8문항), 분노-통제(Anger-Control)(8문항)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내적합치도는 특질분노는 .82였으며, 분노-표출, 억제, 통제는 각각 .73, .78, .79였다(전겸구 등, 1997).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특질분노가 .81이었으며, 분노-표출, 억제, 통제는 각각 .71, .67, .82였다(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8).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Anger Behavior-Verbal Scale)

분노를 표현하는 양식으로 분노를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양식 외에도 언어적인 분노표현 양식이 있다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안되어 왔다(Stoney & Engbretson, 1994). 언어적인 분노표현은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든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든 화가 났던 상황이나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 방식이다. 언어성 분노표현 척도는 Chamber(1999)에 의해 이러한 개인의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건설적 언어행동과 파괴적인 언어행동으로 크게 나뉘고 파괴적인 언어행동은 다시 정당화와 반추적 사고 요인으로 나뉜다. 건설적인 언어행동은 문제해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관점과 분노유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분노를 느끼게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정당화 요인은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해서 타인을 책망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방어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반추적 사고 요인은 분노유발 사건과 관련된 생각에 반추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건설적 언어표현 하위척도는 12문항, 언어성 정당화 하위척도는 6문항, 언어성 반추적 사고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90, .84, .77이었다(Chamber, 1999). 본 연구자가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를 번안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χ^2=502.06, p<.0001이었으며 3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TLI=.97, CFI=.98, RMSEA=.05이었다. 그리고 내적합치도는 건설적인 표현은 .87, 정당화는 .84, 반추적 사고는 .69였으며, 정당화와 반추적 사고 척도를 합친 파괴적인 언어표현은 .84였다(2003). 본 연구에서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보이는 부적응적인 언어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당화와 반추적 사고 요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즉 언어성 분노표현 척도를 건설적인 언어행동과 파괴적 언어행동으로만 구분하였고 이들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Secondary anger thought)

이차적 분노사고 질문지는 분노 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동적 사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다양한 대처 양상이나 행동을 반영하고 있다(서수균, 권석만, 미발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비난/보복(19문항), 무력감(7문항), 분노통제/건설적 대처(8문항)라는 세 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으며(1: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3: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4: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5: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내적합치도는 타인비난/보복이 .93, 무력감이 .78, 분노통제/건설적 대처가 .76이었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결 과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탐색적 요인분석

질문지 조사에서 수집되어 간추려진 55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SPSSWIN 10.0을 이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에서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모두 12개로 고유치 값은 다음과 같았다: 12.81, 6.11, 2.55, 2.34, 1.56, 1.42, 1.32, 1.25, 1.21, 1.14, 1.08, 1.04. Scree plot을 살펴보면 요인수가 4개를 넘어가면서 요인간 고유치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 요인을 4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하고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앞에서와 같이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Oblimin 방법(델타=0)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요인계수행렬에서 표적 요인의 계수가 .40이상이고 동시에 비표적 요인의 계수가 .30이하인 문항만을 최종 척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최종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36개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남겨진 36개 문항을 대상으로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Oblimin 방법(델타=0)으로 회전하여 형태 요인계수 행렬을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표출 태도 척도가 4요인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시사된다. 4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42.1%를 설명해주었으며, 4개 요인 각각의 고유치는 다음과 같았다: 5.49, 4.90, 5.53, 3.83. 요인1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2는 분노표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인3은 분노표현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가 주 내용이었으며 요인4는 분노표현을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내적 신뢰도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구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값을 산출하였다. 분노표출 태도 척도를 구성하는 36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 α값은 .79였다. 각 요인별로 하위척도를 구성했을 때 α값은 요인1(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86, 요인2(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가 .85, 요인3(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이 .86, 요인4(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가 .79였다. 7문항에서 많아야 10문항에 불과한 적은 문항 수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높은 수준의 내적 합치도로 여겨진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안된 4개 요인별로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하위척도 총점과 문항간 상

표 1.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형태 요인계수 행렬

문 항	요인계수			
	1	2	3	4
요인1.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10문항)				
1. 상대방이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 같아 두렵다. (.65)	**.77**	.17	-.02	.01
2. 화를 많이 내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왠지 내가 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47)	**.64**	-.12	.16	-.15
3. 내가 인자하지 못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주위로부터 평가받을까 두렵다. (.60)	**.62**	.09	-.16	-.04
4. 내가 남에게 우습게 보일 것이다. (.53)	**.57**	-.02	.02	.18
5. 상대방이 나 자신을 옹졸하게 생각할 것이다. (.66)	**.56**	.11	-.29	.07
6. 사람들이 나를 난폭하다고 여길 것이다. (.53)	**.50**	.03	-.16	-.03
7. 내 성격이 나빠질 것 같다. (.58)	**.50**	-.05	-.16	.15
8.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 보인다. (.49)	**.48**	-.23	-.13	-.20
9.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다. (.59)	**.48**	-.11	-.24	.15
10.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서 다른 일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57)	**.47**	-.19	-.22	.00
요인2.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10문항)				
1. 내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므로 좋다고 생각한다. (.68)	-.11	**.73**	.07	-.03
2. 화가 날 때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참는 것이 나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62)	-.11	**.60**	-.06	-14
3. 화를 표현해야 화나게 만든 대상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다. (.55)	.26	**.59**	.10	-.17
4. 내 기분이 풀릴 것이다. (.53)	.02	**.59**	.10	.01
5. 화를 내는 것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다. (.56)	-.08	**.58**	-.11	-.14
6.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56)	-.14	**.54**	-.12	-.17
7. 화를 마음속에 담아두기 보다는 가능한 표현하고 해소해야 한다. (.56)	-.08	**.50**	.01	-.23
8. 속이 시원하고 오히려 앙금이 없이 깔끔한 관계가 될 것이다. (.55)	-.12	**.49**	.28	-.06
9. 화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34)	.04	**.46**	-.05	.14
10. 보통의 친구 사이라면 화를 낸다고 해서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49)	.10	**.44**	.25	-.16
요인3.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9문항)				
1. 상대방이 놀랄 것이다. (.52)	-.12	-.01	**-.70**	-.17
2. 서로 어색해질 수 있다. (.59)	.13	-.09	**-.64**	-.19
3. 상대방도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68)	.23	.08	**-.64**	.12
4. 분위기가 안좋아 진다. (.57)	.05	-.18	**-.63**	-.12
5. 상대방이 자신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다. (.58)	.08	.04	**-.61**	.02
6. 화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질 것이다. (.66)	.21	.01	**-.56**	.25
7. 상대방이 상처받을 거 같다. (.58)	.05	-.12	**-.56**	-.01
8.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51)	.09	.18	**-.48**	.19
9.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55)	.18	.01	**-.43**	.22
요인4. 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7문항)				
1. 화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51)	-.05	-.04	-.17	**-.67**
2.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 내에서 화를 낸다면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여 대인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2)	.00	.27	.06	**-.58**
3. 서로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질 수 있지만,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볼 수도 있다. (.60)	-.13	.13	.01	**-.56**
4.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내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54)	-.08	.16	-.07	**-.56**
5. 남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를 내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55)	.03	.25	.01	**-.50**
6. 대화로 차분하게 자신의 화를 표현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6)	.17	-.06	.09	**-.46**
7. 화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48)	-.04	.23	.05	**-.40**
고유치	5.49	4.90	5.53	3.83
전체 설명변량 (%)		42.07		

표 2.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녀 차이 검증

하위척도	전체(n=316)	평균(표준편차) 남자(n=143)	여자(n=173)	t	sig.
부정적인 평가 두려움	39.78(8.72)	39.93(8.91)	39.60(8.62)	.33	.74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43.88(7.91)	43.6(8.05)	44.05(7.83)	-.50	.62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40.39(6.45)	40.52(6.58)	40.33(6.37)	.26	.80
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37.89(4.65)	37.44(5.33)	38.20(3.97)	-1.41	.16

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에서 각 문항 옆의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문항-하위척도 총점 상관은 .34에서 .68 사이였으며, 문항-하위척도 총점 상관의 평균은 요인별로 각각 .57, .54, .58, .5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각각의 하위척도 내에서 문항간 상관의 평균은 .38, .36, .40, .35였으며 부적 상관을 보인 문항간 상관은 없어서, 문항간 상관에서도 내적 합치도는 양호하였다.

남녀 집단 간 평균 비교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하위척도별로 남녀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어느 하위척도에서도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하위척도 간 상관분석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4개 하위척도간의 상관은 표 3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두 요인인 적극적인 분노표출 지지와 소극적인 분노표출 지지는 예상대로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표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를 예상하는 요인간에도 역시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311)=.53$, $p<.001$; $r(315)=.60$, $p<.001$. 이에 반해서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요인들과 반대하는 요인들

표 3. 분노표출/억제 태도 하위척도 간 상관(n=315)

	부정적인 평가 두려움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소극적인 분노표현지지	분노억제-지지 태도
부정적인 평가 두려움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28**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60**	-.28**			
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21**	.53**	-.22**		
분노억제-지지 태도	.62**	-.34**	.34**	-.16**	
분노억제-반대 태도	-.04	.58**	.00	.52**	.-24**

**$p<.01$(양방검증)

간에는 경등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r(313)=-.28$, $p<.001$; $r(313)=-.21$, $p<.001$; $r(311)=-.28$, $p<.001$; $r(312)=-.22$, $p<.001$, 분노표출 태도 척도가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는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라는 두 군으로 다시 나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분노표현 양상과 분노표출 태도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분노표출태도 척도의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요인이 STAXI-K의 분노-표출, AQ-K의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r(134)=.35$, $p<.001$; $r(134)=.36$, $p<.001$; $r(311)=.39$, $p<.001$. 이는 적극적인 분노

표 4. 분노 표현/억제 태도 척도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n=134)

	부정적인 평가 두려움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분노억제-반대 태도	분노억제-지지 태도
STAXI-K						
분노-표출	.23**	.35**	.21*	.15	.50**	-.15
분노-억제	.25**	.04	.22*	.06	.34**	.05
분노-통제	-.10	-.19*	-.03	.00	-.26**	.28**
특질분노	.28**	.13	.21*	-.06	.28**	.08
AQ-K						
신체적 공격성	.12	.36**	.15	.12	.35**	-.18*
언어적 공격성	-.04	.39**	.09	.19*	.28**	-.10
분노감	.33**	.21*	.16	.06	.41**	-.09
적대감	.23**	.20*	.17*	.11	.38**	-.06
언어성 분노행동						
건설적 언어행동	-.01	.11	-.06	.20*	.18*	-.04
파괴적 언어행동	.16	.19*	.18*	.14	.40**	.07
이차적 분노사고						
타인비난/보복	.18*	.27**	.19*	.16	.50**	-.06
무력감	.19*	-.06	.01	.02	.18*	.04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11	.04	.02	.15	.05	.18*

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AQ-K: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p<.05(양방검증), **p<.01(양방검증)

표출 지지 요인이 과격한 분노표현과 가장 관련이 높은 분노표출 태도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STAXI-K의 분노 억제는 분노표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두 요인인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를 예상하는 요인과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인데 반해서, 적극적인/소극적인 분노표출 지지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34)=.25$, $p<.01$; $r(134)=.22$, $p<.01$; $r(134)=.04$, *ns*; $r(134)=.06$, *ns*. 이러한 결과는 분노표출태도와 분노표현 양상과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분노표출 태도 척도가 분노표현의 부적응적인 두가지 표현 양상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잘 예언해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어느 요인도 적응적인 표현 양상인 STAXI-K의 분노-통제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극적 분노표출 지지 요인이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건설적인 언어성 분노행동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 $r(134)=.20$, $p<.05$, 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가 적응적 분노 행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적극적인 분노표출 지지요인은 파괴적인 언어성 분노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134)=.19$, $p<.05$.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분노 억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 요인이 분노-표출과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r(134)=.23$, $p<.01$; $r(134)=.21$, $p<.05$. 이 두 요인은 AQ-K 의 분노감과 적대감과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요인이 분노를 적응적으로 통제해서 표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분노표출 태도의 두 하위 척도인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표현 양상을 제대로 변별해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이 두 태도만으로 개인의 분노 표현 행동을 예언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예상할 수도 있으며, 분노를 드러냈을 때 돌아오는 타인이 부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를 예상하면서 분노를 억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노를 쉽게 표현하는 동시에 그런 자신의 분노 표현 행동을 곧이어 후회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와의 상관 분석

이차적 분노사고는 분노 유발 상황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대처양상과 관련된 사고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내용은 분노표현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분노표현 양상을 예언하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노표출 태도, 이차적 분노사고, 분노표현 양상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적극적인 분노표출 지지 요인은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의 타인비난 및 보복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무력감이나 분노통제 및 건설적 대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34)=.27$, $p<.01$; $r(134)=-.06$, *ns*; $r(134)=.04$, *ns*. 이는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분노유발 상황에서 떠올리는 자동적 사고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의 타인비난 및 보복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와도 경등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34)=.18$, $p<.05$; $r(134)=.19$, $p<.05$. 이는 분노표출 태도 척

도가 STAXI-K의 분노-표출과 보인 상관관계 양상과 유사하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보복은 STAXI-K의 분노-표출, AQ-K의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134)=.47$, $p<.001$; $r(134)=.49$, $p<.001$; $r(134)=.37$, $p<.001$, 무력감과 분노통제 및 건설적 대처는 STAXI-K의 분노-억제, 분노-통제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34)=.53$, $p<.001$; $r(134)=.42$, $p<.001$. 이러한 결과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실제 분노표현 양상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양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부적응적인 이차적 분노사고를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해 준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무력감은 AQ-K의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지만 분노감이나 적대감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34)=.03$, ns; $r(134)=-.02$, ns; $r(134)=.40$, $p<.001$; $r(134)=.52$, $p<.001$. 이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분노나 공격성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는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분노통제 및 건설적 대처는 STAXI-K의 분노-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AQ-K의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34)=.42$, $p<.001$; $r(134)=.04$, ns; $r(134)=.07$, ns. 이는 이차적 분노사고의 분노통제 및 건설적 대처 요인이 분노를 적응적으로 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탐색적 요인분석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대상으로 SPSSWIN 10.0을 이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와 같이 공통요인분석 중에서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7개로 그 값은 다음과 같았다: 7.17, 2.74, 1.68, 1.40, 1.23, 1.08, 1.04. Scree plot을 살펴볼 때, 3번째 요인에서 갑자기 고유치가 크게 떨어지고 그 뒤로는 고유치가 근소하게 떨어지고 있는 바, 요인을 두 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요인 수를 두 개로 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앞에서와 같이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Oblimin 방법(델타=0)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요인계수 행렬에서 표적 요인의 계수가 .40 이상이고 동시에 비표적 요인의 계수가 .30 이하인 문항만을 최종 척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최종 척도에 포함된 문항수는 23개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남겨진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Oblimin 방법(델타=0)으로 회전하여 형태 요인계수 행렬을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2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34.63%를 설명해주었다. 첫 번째 요인은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치가 5.75였으며 두 번째 요인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치가 2.70이었다. 요인1은 분노억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요인2는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내적 신뢰도

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구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값을 산출하였다. 분노억제 태도 척도를 구성하는 23개 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 α값은 .79였다. 각 요인별로 하위척도를 구성했을 때 분노억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요

표 5. 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형태 요인계수 행렬

문 항	요인계수 1	요인계수 2
요인1. 분노억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1. 화를 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다. (.63)	**.67**	-.01
2. 화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 수도 있다. (.57)	**.66**	.20
3. 화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사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은 괴롭다. (.60)	**.65**	.04
4.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 것이다. (.62)	**.64**	-.06
5. 화를 너무 참는 것은 어리석다. (.60)	**.63**	-.10
6. 화가 나는데도 일부러 참는 것이라면 대인관계에 앙금을 남기게 되어 좋지 않다. (.62)	**.63**	-.19
7. 억압된 분노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더 위험하다. (.59)	**.61**	-.12
8. 화가 계속 쌓이게 되면 다른 곳에 화풀이 할 것이다. (.52)	**.58**	.10
9. 화가 나는데도 참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55)	**.57**	-.11
10. 억압된 분노는 불신감, 공격적인 생각, 외로움을 만들어 낼 것이다. (.53)	**.55**	-.10
11.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행위다. (.54)	**.52**	-.19
12. 화를 억누르다보면 은연중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46)	**.52**	.12
13.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착한 거 같아 답답하다. (.46)	**.50**	.08
14. 화를 내지 않으면 타인에게 너무 물렁하거나 너무 착한 사람으로 비쳐져서 이용당할 수 있다. (.41)	**.46**	.07
15. 화를 지나치게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알기가 어렵다. (.43)	**.46**	.02
16. 타인이 나를 불쾌하게 하는데도 화를 안내면 상대가 나를 바보로 알 것이다 (.43)	**.45**	-.02
17.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45)	**.44**	-.11
요인2. 분노억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1.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자기통제력이 강한 것이다. (.59)	.00	**.67**
2.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행위다. (.56)	.05	**.66**
3.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54)	.03	**.63**
4. 화를 내면 낼수록 습관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화를 낼 테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 (.51)	-.13	**.59**
5. 언젠가 폭발할 것이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화를 참는 것이 좋다. (.43)	-.21	**.51**
6. 화를 표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유지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41)	.06	**.48**
고유치	5.75	2.70
전체설명변량 (%)	34.63	

인의 α값은 .89였으며, 분노억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요인의 α값은 .76이었다.

앞에서와 같이 하위척도 총점과 문항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서 각 문항 옆의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문항-하위척도 총점 상관은 .41에서 .63 사이였으며, 문항-하위척도 총점 상관의 평균은 요인1이 .53이고 요인2는 .51로 연구1의 분노표출 태도 척도에서와 같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각각의 하위척도 내에서 문항간 상관의 평균은 요인1과 2가 각각 .32와 .35였으며 문항간에 부적인 상관은 없었다.

남녀 집단간 평균 비교

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하위척도별로 남녀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으며, 남녀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억제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태도 요인에서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노억제를 반대하는 부정적인 태도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98)=-4.00$, $p<.001$. 즉 남자나 여자 모두 분노억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분노억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에서는 여자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는 분노억제를 미덕으로 여겨온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여대생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일면 반영하고 있어 보인다.

분노억제 태도와 분노표출 태도 하위척도간 상관분석

분노억제-지지 태도 하위척도는 분노표출 태도의 부정적인 평가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요인과는 중등도 이상의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r(309)=.62$, $p<.001$; $r(308)=.34$, $p<.001$,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두 요인과는 부적인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다, $r(306)=-.34$, $p<.001$; $r(306)=-.16$, $p<.01$. 분노억제 반대 태도 하위척도는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두 요인과 높은 상관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으며, $r(297)=.58$, $p<.001$; $r(298)=.52$, $p<.001$, 부정적인 평가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301)=-.04$, $ns.$; $r(301)=.00$, $ns.$ 이러한 결과는 하위척도간에 일관되고 합치되는 결과로 이해되며 분노억제 태도 척도와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해주고 있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노표현 양상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예상대로 분노억제-반대 태도 요인은 분노-표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파괴적인 언어행동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34)=.50$, $p<.001$; $r(134)=.35$, $p<.001$; $r(134)=.28$, $p<.001$. 반면에 분노-통제와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표 6. 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녀차이 검증

하위척도	평균(표준편차) 전체(n=309)	남자(n=138)	여자(n=171)	t	$sig.$
분노억제-반대 태도	84.78(12.13)	81.69(13.02)	87.29(10.74)	-4.00	.00
분노억제-지지 태도	22.31(5.39)	22.43(5.55)	22.20(5.31)	.37	.71

보여, 분노억제-반대 태도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행동과 관련이 높음을 시사해 주었다($r(134)$=-.26, p<.01). 이에 비해서 분노억제-지지 태도 요인은 분노-통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신체적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표출과도 부적인 상관 경향성을 보였다, $r(134)$=.28, p<.01; $r(134)$=-.18, p<.05; $r(134)$=-.15, p<.10. 특히 분노-억제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분노-억제 지지 태도가 부적응적인 분노억제와 구별되는 적응적인 분노억제 태도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본 상관분석에서 흥미로운 한가지 결과는 분노억제-반대 태도와 분노-억제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r(134)$=.34, p<.01. 이러한 결과는 특질분노 수준을 통제한 뒤에 부분상관을 구했을 때도 큰 변화가 없었다, $r(131)$=.27, p<.001. 이는 분노억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물론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와 함께 분노억제를 함께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노표출, 억제, 통제라는 세 가지 분노표현 양상 외에도 분노표출과 억제를 비일관되게 보이는 불안정한 분노표현 양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이차적 분노사고와의 상관분석

분노억제-반대 태도 요인은 예상대로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 및 보복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통제 및 건설적 대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34)$=.50, p<.001; $r(134)$=.05, *ns*. 이에 비해서 분노억제-지지 태도 요인은 타인비난 및 보복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에 분노통제 및 건설적 대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134)$=-.06, *ns*; $r(134)$=.18, p<.05. 이러한 결과는 분노억제 태도가 이차적 분노사고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데, 분노억제-반대 태도보다는 분노억제-지지 태도가 적응적인 이차적 분노사고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연구 2. 분노표현 태도 2 요인

방 법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며 분노표출 태도 척도에서 4개 요인이, 분노억제 태도 척도에서 2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연구2에서는 분노표현 태도의 상위 요인을 탐색적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에서 확인된 6개 요인(즉,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 적극적인 분노표현지지, 소극적인 분노표현지지, 분노억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분노억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의 하위척도별 점수를 이용한 척도 수준의 요인분석을 하였다.

참여자

서울 시내 대학 학부생 247명(남, 134명; 여, 1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남녀 모두 22세였다. 이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1에서 개발된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를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분노표현 태도를 구성하는 6개 문항(분노/표

표 7. 분노표현 태도 2요인의 형태 요인계수 행렬

문 항	요인계수	
	1	2
요인1. 분노표현 지지 태도		
1.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86**	-.24
2. 분노억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76**	-.10
3. 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73**	-.15
요인2. 분노억제 지지 태도		
1.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10	**.82**
2.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	.30	**.71**
3. 분노억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10	**.51**
고유치	1.90	1.53
전체설명변량 (%)	57.22	

출 태도 척도의 6개 하위척도 점수)을 대상으로 SPSSWIN 10.0을 이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을 때, 요인별 고유치는 다음과 같았다: 2.28, 2.00, .69, .42, .34, .32.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두 개였으며 scree plot을 살펴볼 때도 요인 수를 두 개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요인 수를 두 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oblimin (델타=0)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요인계수 행렬을 표 7에 제시하였다. 2개 요인이 설명해주는 전체 변량은 57.22%였으며, 고유치는 첫 번째 요인이 1.90, 두 번째 요인이 1.53이었다. 요인1은 분노표현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적극적인 분노표현 지지와 소극적인 분노표현 지지 요인, 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분노억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2는 분노억제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예상 요인, 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분노억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요인간의 상관은 -.01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표현 지지와 분노억제 지지 요인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분노표현 태도는 분노표현 지지와 분노억제 지지라는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두가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양상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각각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먼저 분노표출 태도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이 발견되었다: 적

극적인 분노표출 지지, 소극적인 분노표출 지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 요인간 상관을 분석해 보면 분노표출을 지지하는 요인(적극적인/소극적인 분노표출 지지 요인)과 분노표출을 두려워하는 요인(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 예상)으로 다시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분노표출 행동과 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분노표출 태도와 행동이 대체로 일관되었다. 분노표출을 강하게 지지할수록 분노가 외현적으로 과격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분노표출을 두려워할수록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노표출 태도의 상관분석에서 흥미를 끄는 점은 분노표출 태도의 어떤 요인도 적응적인 분노표현 행동인 STAXI-K의 분노-통제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부 요인들에서는 분노-통제와 부적인 상관 경향성을 보였으며, 모든 요인들이 분노-표출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분노표출 태도 척도가 전반적으로 부적응적인 분노표출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으로 분노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노표출 태도 척도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 비난 및 보복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분노억제 태도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분노억제에 대한 긍적적인 태도(분노억제-지지) 요인과 분노억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분노억제-반대) 요인이 확인되었다. 분노억제-지지 요인은 과격한 분노표출 행동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에 비해 분노억제-반대 요인은 과격한 분노표출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표출 태도 척도에서의 결과와 합치되는 내용으로 분노표현 양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실제 분노표현 행동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분노억제-지지 요인이 STAXI-K의 분노-통제, 이차적 분노사고의 분노통제 및 건설적 대처와 같은 적응적인 분노표현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반해서, STAXI-K의 분노-억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노억제-지지 태도가 적응적인 분노통제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분노표출 및 억제 태도가 실제 분노표현 행동과 상당히 일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표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는 사람들의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행동 이면에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태도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분노표현 행동을 적응적으로 수정해 주기 위해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태도를 적응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심리치료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연구2에서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에서 확인된 6개 요인을 문항으로 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표출/억제 태도 척도의 상위 요인으로 분노표현 지지와 분노억제 지지라는 두 요인이 확인되었다. 분노표현에 관한 개인의 태도가 크게는 분노표현을 지지하는 것과 분노억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눠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두 요인은 독립적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 태도를 분노표출 태도 척도와 분노억제 태도 척도로 구분해서 개발한 것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분노표현 태도가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분노표현 행동 양상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독립적인 것과 일관된다(Spielberger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태도와 분노표현 행동간의 일관성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분노표현 태도의 하위 요인들 간의 비일관성이나 모순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 분노표출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분노억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모순되는 태도가 양립할 경우에, 이것이 분노표현 행동이나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분노표현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양가적인 분노표현 태도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동시에 과도하게 보이는 불안정한 분노표현 양상을 초래하는데 기여한다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분노표현의 세가지 양식, 즉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외에 불안정한 분노표현 양식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문제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몇 가지 고려해 보겠다. 첫째, 분노표출 및 억제 태도 척도가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교차타당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얻은 개인의 분노표현 행동에 대한 정보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통해서 얻은 자료다. 제 3자에 의해서 관찰된 개인의 분노표현 행동과 분노표현 태도와의 관련성을 평가해 보는 것은 분노표현 태도와 분노표현 행동간의 관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노표현 태도 척도가 자기보고형 질문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용인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보고될 수 있다. 사회적 선희성이 분노표현 태도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나, 사회적 선희성을 통제하고 분노표현 태도와 분노표현 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모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 집단에 성급하게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교헌 (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181-192.

김교헌, 전겸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나은영 (2000). 제10장. 사회심리. 현대심리학 입문. 정민사.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87-501.

이훈진 (2001). 편집성향 집단의 분노표현 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443-452.

전겸구 (1991). 분노표현 양식과 신체병리와의 관계. 199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초록.

전겸구 (1999). 분노에 관한 기초 연구. 재활심리연구, 6(1), 173-190.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2. 60-78.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대학생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3(1). 18-22.

차재호 (1996). 제8장. 사회과정. 심리학 개론. 박영사.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47-579.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1145-1160.

Beck, A.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Perennial.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Bridewell, W. B., & Chang, E. C. (1996). Distinguishing between anxiety, depression, and hostility: relations to anger-in, anger-out, and anger-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2(4),* 587-590.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36,* 163-170.

Chambers, L. (1999). *The relation among self-reported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anger verbal behavior and resting blood pressure.*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Dalhausie University.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Best Practices for Therapy.

DiGiuseppe, R. (1999). End piece: reflections on the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11-324.

Ellis, A., & Tafrate, R.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Birch Lane Press.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Kassinove, H., & Sukhodolsky, D. G. (1995). Anger disorders: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s. Kassinove(Ed). *Anger Disorders: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50-67)* . Tatlor & Francis.

LaPierre, R. T. (1934). Attitudes vs. action. *Social Forces, 13,* 230-237.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Martin, R., Wan, C. K., David, J. P., Wegner, E. L., Olson, B. D., & Watson, D. (1999). Style of anger expression: relation to expressivity, personality, and heal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10),* 1196-1207.

Mancuso, R. A., & Fredrickson, B. L. (1995). Psycho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anger ideals. Paper presented a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Mancuso, R. A. (1999). *Anger ideals and their impact on emotional and physiological reality.*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University of Michigan.

Moore, T. W., & Paolillo, J. G. P. (1984). Depession: Influence of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hostility and length of treatment. *Psychological Report, 54,* 875-881.

Snyder, C. R., Crowson, J. J., Houston, B. K., Kurylo, M., & Poirier, J. (1997). Assessing hostile automatic though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AT sc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 477-492.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man, S. M.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Kassinove(Ed). *Anger Disorders: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p.49-67)*. Tatlor & Francis.

Stoney, C. M. & Engbretson, T. O. (1994). Anger and hostility: Potential mediators of the gender difference in coronary heart disease. In A. W. Siegman & T. W. Smith (Eds.), *Anger, hostility and the heart (pp. 215-237)*. Hilldale, NJ: Lawrence Erlbaum.

Thich Nhat Hanh. (2001). Anger. Riverhead Books.

Zaitsoff, S. L., Geller, J. & Srikameswaran,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0(1)*, 51-60.

원고접수일 : 2004. 1. 29
게재결정일 : 2004. 4. 8

KCI

한국심리학회지 : 임 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4. Vol. 23, No. 2, 521-540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Anger-Out/Anger-In Attitude Scale

Su-Gyun Seo Hoon-Jin Lee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e scales Which assess an attitude of anger-out and anger-in. Initial items were sampled in 82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preliminary Anger-out/Anger-in Attitude Scale were administered to 316 undergraduate students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cales which assess anger expression behaviors were administered to 134 undergraduate students with the Anger-Out/Anger-In Attitude Scale to examin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main results were: 1) The Anger-Out Attitude Scale was composed of 36 items, 4 factors(fear for negative assessment(10 items), active support of anger-out(10 items), expectation of nega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9 items), passive support of anger-out(7 items)). 2) The Anger-In Attitude Scale was composed of 23 items, 2 factors(anger-in con(23 items), anger-in pro(10 items)). 3) The internal reliabilities of each factors in the Anger-Out/Anger-In Attitude Scale showed .76～.89 and were accep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the Anger-Out/Anger-In Attitude Scale with scales which assess anger expression behaviors supported consistently validities of the Anger-out/the Anger-in Attitude Scales. This findings indicate that attitudes for anger-out and anger-in influence consistently on anger expression behaviors

Keywords : Anger expression, Anger-out attitude, Anger-in attitude